

“대선 공약 반영”... 광주시 ‘여의도 집무실’ 운영

정당·대선 후보 등 만나 지역 현안·추경 예산안 확보 강기정 “이재명 AI 공약, 대한민국 성장판 열어” 환영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집무실을 차리고 대선 공약 반영과 정부 추경 예산안 확보를 위해 올인한다.

강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시기가 끝나고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가 접어들었다”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의도 집무실을 찾아 지역 현안 확보에 나선다.

강 시장은 “이번 주부터 원내 5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서 광주의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고, 계획적으로 광주 일을 대선 정국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매주 수요일 서울에 머물며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과 국회 관계자, 대선 후보들을 만나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공 조성 등

광주시 대선 공약을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 23일 수요일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멈춰 있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구축과 관련해 기재부 등을 방문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특히 최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설립,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광주 발전 공약을 여의도 집무실을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어떤 정책이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5년, 10년 미래가 결정된다”며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이 그랬듯이 지자체장은 대선 기간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시청 주요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일정으로 푸리오사를 방문했다”며 “푸리오사는 메타의 1조2000억원 인수제안을 거절하고 K-엔비디아에 도전하는 기업이며 지난 3일 광주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 AI 인프라, 인재, 기업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광주는 AI실증을 위한 670억 추경 예산편성과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국가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기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 100조원 투

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자 강기정 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첫 일정으로 푸리오사AI를 방문한다”며 “이는 참 잘한 일이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푸리오사AI는 1조2000억원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K-엔비디아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지난 1일 광주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꿈꾸며 인프라, 인재, 기업을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푸리오사AI 방문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일이다”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첫 공식일정으로 이날 AI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푸리오사AI를 방문했다. 푸리오사AI는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광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광주시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정책에 참여한다. 푸리오사AI 제품은 비슷한 사양의 엔비디아 H100보다 전력효율이 뛰어나 기술력을 인정받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민의힘 ‘4강’ 경쟁 본격화

金·韓·洪 그리고 安 또는 羅 찬탄·반탄 따라 유불리 전망

국민의힘이 14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첫 관문인 ‘4강전’을 향한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대상)를 통해 오는 22일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등이다.

최근 여론조사 경향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이 4강행 터켓을 쫓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4강전에 오를 나머지 한 명이 누굴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지지 표심이 ‘찬탄파’(탄핵소추 찬성파) 안철수 의원에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에겐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실망한 당시 지지가 쏠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 의원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해 왔다.

2차 경선으로 가면 4명 가운데 반탄파

(탄핵소추 반대파)와 찬탄파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 안 의원이 4강전을 치른다면 반탄파(김문수·홍준표)와 찬탄파(한동훈·안철수)를 둘러싼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지지 표심이 ‘찬탄파’(탄핵소추 찬성파) 안철수 의원에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 의원 대신 나 의원이 4명 안에 든다면 한 전 대표를 제외한 3명이 찬탄파로 묶인다. 이 경우 한 전 대표가 반탄파의 지지를 몰아받게 되면서 최종 경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

도.지진재해보험 등 가입 홍보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 대상

전남도가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작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가입 대상,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주택(80㎡) 보험료는 약 3만9000원인데 도민은 2만1500원을 지원받아 1만7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 및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과외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80㎡ 소유자가 자연재난으로 주택전과외 피해를 입으면 상이하다. 재배 품종도 레드키위(조생종), 골드키위(중생종), 그린키위(만생종) 등 다양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4월 전남 친환경농산물에 ‘유기농 키위’

사람·흙 살리는 유기농 멘토 오승희씨, 진도서 역대 소득

전남도는 진도군에서 재배된 ‘유기농 키위’를 4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 슈퍼푸드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진도산 유기농 키위는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돼 당도와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도군내면에서 유기농 키위를 재배하는 오승희씨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키위 농사를 시작했다. 키위 재배 초기에는 관로도, 기술도 부족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땅은 정직하다’는 믿음으로 농사를 이어왔다.

특히 고추 농사를 병행하던 중 남편이 농가 중독을 겪으면서, 1994년 무농약 키위 재배를 시작했고, 2015년 유기농 인증을 받으며 본격적인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약 4.2ha에서 연간 50~52t의 유기농 키위를 생산하며, 연 소득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 재배 품종도 레드키위(조생종), 골드키위(중생종), 그린키위(만생종) 등 다양하다.

단순한 생산을 넘어, ‘삼색키위연구회’를 조직하고 선도 농가로서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현재까지 8~9농가의 키위 재배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 유기농 키위 산업을 이끌고 있다.



오씨는 “정성껏 친환경으로 재배하면 땅과 식물은 그만큼 정직하게 응답한다”며 “젊은 농업인이 진도로 내려와 함께 키위 농사를 지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도 유기농 키위는 농약과 비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축산에서 나온 퇴비를 활용한 순환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전남도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유기농 키위 생산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오승희 씨처럼 땅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 농가 덕분에 전남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밝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덕수 권한대행 “마지막 소명 다할 것”

국무회의서 밝혀... ‘대선 불출마 시사’ 해석
우 의장, 한 대행 대정부질문 불출석 지적

대통령 선거 출마에 힘쓰던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와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해 출마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통상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기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발(發) 관세조치 등 우려되는 통상 문제 대응을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겠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자신에 관한 출마설이 확대 재생산되는 시점에서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이 가각된 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이 가각된 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이 가각된 판소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행 차출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현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점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대결에서 큰 폭으로 뒤지고, 미국발 통상 마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미국통’, ‘경제통’이라는 한 대행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등 우려되는 통상 문제 대응을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겠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자신에 관한 출마설이 확대 재생산되는 시점에서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일부 국민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서도 국정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마지막 소임을

와 일대일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공직자의 최종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고, 국민의힘 후보 확정은 다음 달 3일이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1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선 경선에 나설 후보들은 한 대행 출마설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진작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기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양 교섭단체에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서왕진 “한덕수가 걸을 길은 단죄의 길뿐”

“조국혁신당, 내란종식·압도적 정권교체 실현” 강조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대행 한덕수가 2019년 검찰 쿠데타 이후 대권까지 거머쥔 윤석열의 길을 끊어야 한다. 한덕수가 걸을 길을 끊어야 한다. 한덕수가 걸을 길을 끊어야 한다.”

서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광장과 국회에서 헌정수호와 내란종식을 위해 연대했던 모든 세력은 이제 정치연합을 넘어 선거연합의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정수호 세력은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내란종식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는 선거연합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번 조기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울러 조국혁신당은 내란세력의 재집권 시도를 차단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쇄빙선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건희 수사”라며,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단 한마디의 사죄 없이 퇴거 쇼를 벌이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이런 뻔뻔한 행위에 철뱀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윤석열 측근 이원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 한 시도는 헌정질서를 왜곡하는 정치 술수”라며 “한덕수 내란대행이 걸을 윤석열의 길은 법적, 정치적 단죄의 길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탄핵시키고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은 헌정체제 안에 존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권교체 이후 위한 정당 핵심심판을 통해 헌정질서를 부정한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윤석열·들’과의 전면전이 남아있다. 조국혁신당은 광장과 국회에서 연대했던 모든 세력과 함께 확실한 내란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